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4년 6월 5일

CUOMO 주지사, D-DAY 70주년을 기념하여 조기 게양을 지시하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D-Day 70주년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6월 6일 금요일 뉴욕주정부 건물에 다는 기를 조기로 게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, "D-Day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 운명적인 날과 2차 대전 당시 우리 미국의 육군으로 전장에 나가 싸운 용감한 남녀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의 전장과 군사시설에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쓴 이 분들은 미국을 위해서 영웅적인 활동을 한 분들로 미국인의 용기를 보여준 진정한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전쟁 당시 참전한 900,000의 뉴욕 주민들 중에서 거의 37,000의 군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예를 다해 기리고자 합니다.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는 이 참전용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업적의 의의를 잠시 반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"

D-Day와 관련된 중요한 분은Theodore Roosevelt의 아들이신 Theodore Roosevelt Jr. 준장이십니다. 이분은 56세에 침략군으로 참전한 최노장 군인이었으며 D-Day에 상륙한 유일한 군장성이었습니다. 그는 Utah Beach 제4보병사단의 부사단장으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Korean